

보도시점 회의종료 후 별도 문자 공지 배포 2023. 6. 28.(수) 10:40

#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국가 본질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 투자 강화 -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정부는 6.28일(수)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3~’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여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금번 논의된 내용은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오기남 (044-215-5720)
	재정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형 (044-215-5721)